

# 최태원의 뜻심있는 ESG 실천... '탄소감축 전문 조직' 신설

(SK 회장)



최태원 '넷제로 빠른 추진' 강조  
자체 개발 탄소감축인증표준으로  
관계사 탄소감축 노력·성과 계량  
'SK 녹색경영' 신뢰도 제고 기대

SK그룹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문 조직을 신설하며 ESG 경영에 힘을 더한다.

SK그룹은 23일부터 'SK탄소감축인증센터'를 신설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신설한 SK수펙스추진협의회 환경사업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증센터는 SK가 독자 개발한 SK탄소감축인증표준 등을 활용해 그룹 차원의 넷제로 등 친환경 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유 인프라 기능을 하게



최태원 SK회장이 확대경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SK

된다. SK 관계사가 제시한 탄소감축 방법론과 감축량을 ▲ 실제성(전체 배출원을 확인했는지 여부) ▲ 추가성(탄소감축을 위한 추가 노력 여부) ▲ 지속성(감축 효과의 지속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SK탄소감축인증표준은 SK 관계사

의 제품,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를 평가 및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이 분야 글로벌 표준으로 평가되는 국제연합(UN) CDM과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인증기관인 베라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SK는 인증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

기 위해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 등이 참여하는 제3자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심의를 맡는 인증위원 6명 중 50%를 외부 전문가로 채웠다. 이같이 노력과 성과를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 SK 녹색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 관계사가 창출한 탄소감축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린 경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SK CEO들은 지난 6월 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기후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보다 앞서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한다는 넷제로 선언을 공동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넷제로는 하나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로서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넷제로의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SK 관계사는 "외국 민간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탄소감축 평가는 절차가 복잡해 인증까지 평균 1년 6개월 가량 소요되는 반면, SK 인증센터는 그 기간을 6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며 "인증센터를 통해 더 많은 탄소배출원을 찾아내거나 크레딧(Credit) 시장 등 환경사업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SK 환경사업위원회 그린 패러티(Green Parity) 소위원장이인 조경복 SK에너지 사장은 "민간 기업 최초의 인증센터인 만큼 외부 평가기관과 투자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해 자발적 탄소 시장 생태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보폭 넓히는 韓 방산기업 글로벌시장 수주 '총력전'

한화디펜스, 美 육군 54조 사업  
차세대 전투장갑차 개념설계 참여  
현대로템, 노르웨이서 물밑작업  
차세대 전차사업 수주 獨과 경쟁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인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 속도를 높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최근 미국 군용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잡고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복합 운용 보병전투장갑차 개념설계에 참여한다.

미 육군은 지난 23일 선택적유인차량(OMFV) 개발 사업의 2단계 개념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를 발표하며 그 중 하나로 '오시코시-한화' 컨소시엄을 뽑았다. OMFV 사업은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대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 육군 현대화 사업 핵심 과제로 총 사업비가 54조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OMFV 입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됐으며 제너럴다이내믹스, BAE 시스템즈, 라인메탈 디펜스 등이 이끄는 6개 이상의 글로벌 컨소시엄과 방산기업이 경쟁에 뛰어 들었다. 한화디펜스는 오시코시 디펜스의 협력사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경쟁 후보들은 향후 15개월 동안 미 육군이 제시한 주요 요구 사항에 맞는 개념연구와 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2023년경 상세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맡을 3개 후보가 압축되며, 2027년 하반기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한화디펜스는 한국 육군의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호주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레드백(Redback) 장갑차 개발을 통해 쌓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서 최첨단 유무인 복합전투차량 설계·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한화디펜스 레드백 장갑차 이미지.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한국 대표 방산기업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첨단 전투장갑차 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경쟁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레드백 등 한화디펜스가 보유한 최첨단 장갑차 개발의 기술력과 역량을 결집해 미국 OMFV 사업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사업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영업·생산·설계 등 실무부서 인원들이 현지로 파견돼 관련 기관 및 잠재적 협력사들을 방문하고 있다. 현지 최종 조립 및 시스템 통합을 제한해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KMW사)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K2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 중 입찰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택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1월 노르웨이 방산 물자관리청에 RFI(정보제공요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내년 초까지 RFI를 검토한 후 내년 2월 동계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2025년까지 육군 배치를 목표로 한다.

/양성운 기자 ysw@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공모주

모주 슈퍼시즌!  
두가 부러워할  
추가 되고 싶다면?

## KB증권

당신이 기다리던 바로 그 공모주!  
KB증권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STEP 1 KB증권 계좌를 미리 틈다

이미 있다면 받은 성공!

STEP 2 청약 우대까지 꼭꼭 챙긴다

최대 3배수까지 청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STEP 3 다음 청약도 즐겁게 기다린다

추가 혜택과 특별한 이벤트는 덤!

순신계 청약 우대받기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1-1644호(2021년 7월 16일~2022년 7월 15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른 투자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모바일 0.1973% 일률적용.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PO 공모주식은 상장초기 가격변동성이 크며,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여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청약자에게 복수 배정방식(공동방산+비례방산 등)이 적용되어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예비,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